박태환, 올 첫 실전 선두 달렸다

아레나 프로스웜 시리즈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서 3분44초38로 금메달 획득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마린보이' 박태환(28·인천시청)이 올해 첫 실전무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태환은 지난 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매컬리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17 아레나 프로스웜 시리즈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4초38을 기록해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자유형 400m 예선에서 출전선수 44명 중 1위를 차지했던 박태환은 결승전에서도 2위 퀠릭스 어보에크(미국·3분50초39)를 멀찌감치 따돌려 세계 정상급 기량을 확인했다.

올해 남자 자유형 400m 기록은 쑨양(중국)이 기록한 3분42초16이다.

지난 2월 중순부터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던 박태환은 3월 2017 뉴사우스웨일스(NSW) 스테이트 오픈 챔피언십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국내 대표 선발전 일정 변경으로 훈련 계획이 틀어지자 출전을 포기했다.

이번 대회에는 오는 7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진행되는 제17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롱코스) 출전 티켓이 달려있다.

대한수영연맹은 이번 대회 기록을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 기준기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12월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25m)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약 5개월 만에 실전에 나섰다.

박태환은 자유형 100m에서 48초62의 성적으로 61명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아시아수영선수권대회 당시 기록(48초77)보다 빠르다. 100m 예선에서 이미 A기준기록을 넘어 결승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주종목인 400m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주종목인 400m에서는 3분51초62로 출전선수 44명 중 1위에 이름을 올렸고, 결승전에서도 경기 초반부터 역영을 펼쳐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근 기자

이동국·김신욱 연속골… 전북현대, 대구FC전 2-0 승리

제주에 0-4 대패 후 승점 3점 추가
제주와 다득점에 밀려 2위 유지

전북현대가 6일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FC 원정경기에서 이동국, 김신욱의 연속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9라운드서 제주에 0-4 대패를 당한 전북(6승2무3패)은 이날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제주와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에서 밀리며 2위를 유지했다. 대구는 시즌 5패째(2승3무·승점 9)를 맛봤다. 순위는 11위다.

전북은 전반 내내 높은 점유율을 통해 공격을 펼쳤지만 좀처럼 골을 터뜨리지 못했다. 후반 5분 상대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이동국이 성공시키면서 '0의 균형'을 깬 전북은 후반 43분 김신욱이 결승골을 더하며 2-0 승리를 챙겼다. /김민근 기자

지난 6일 대구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대구FC의 경기가 있었다. ➔

전북 장애인체전 10일부터 부안서

도내 장애체육인들의 한마당 제전인 '전북장애인체육대회'가 '축복의 땅 부안에서! 생동하는 전북의 꿈!'이라는 슬로건 아래 10일부터 11일 까지 부안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북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14개 시·군 2,600여명의 선수들이 체육을 통해 사회 참여의식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도내 장애인체육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의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개·폐회식을 비롯한 20개 정식종목으로 운영되며, 시·군의 열띤 경쟁속에 치뤄질 예정이다.

특히 도내 장애체육인들의 화합의 장인만큼 다채로운 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대회를 통해 소통하고 하나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도 장애인체육회와 부안군은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가하는 선수단들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하여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교육, 의무반 배치 등 대회 준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다.

노경일 사무처장은 "도내 장애체육인들의 한마당 축제를 기획함과 동시에 각 종목별 활성화와 대회 운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는 대회"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 출전
FIFA, 메시 A매치 4경기 출전금지 징계 철회

심판 모욕으로 징계를 받았던 리오넬 메시(30·아르헨티나)가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지난 6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의 항소를 받아들여 메시의 징계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메시는 지난 3월 24일 칠레와의 러시아 월드컵 남미예선 13차전에서 1-0으로 승리한 뒤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악수를 거부하고 모욕적 언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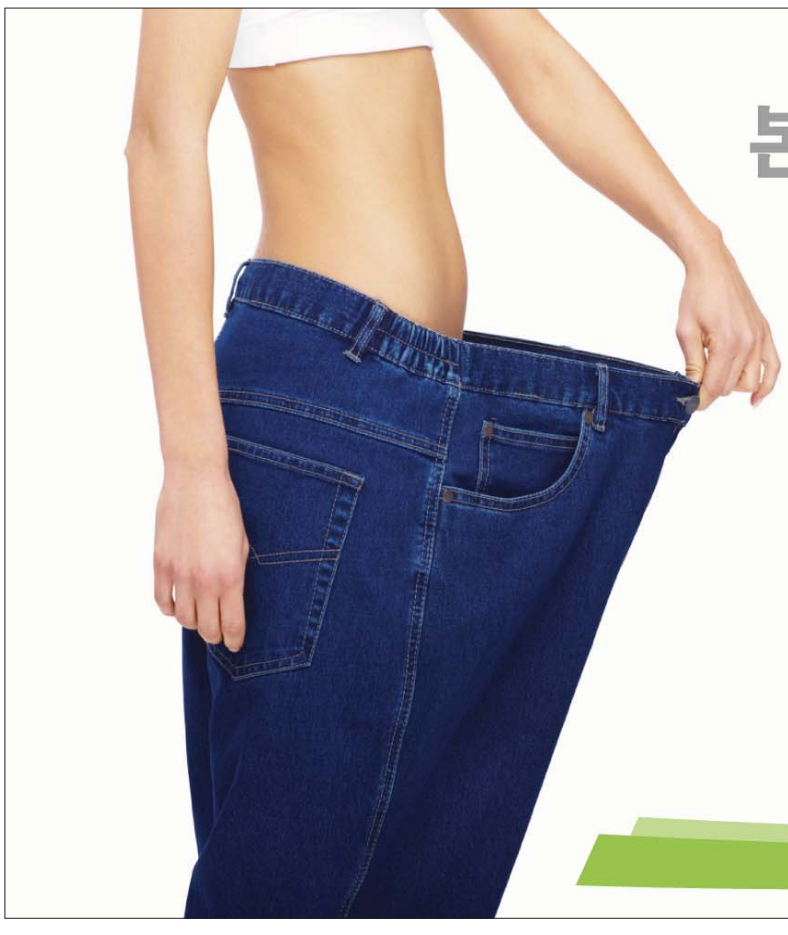
이에 FIFA는 3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4경기 출장 정지 및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145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메시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판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도 반발하며 항소했다.

지난 4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FIFA는 "메시의 행동이 비난받을 만하지만 규정을 어겼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징계를 철회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남미 예선에서 6승4무4패(승점 22)로 5위를 기록중인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와의 남은 경기에서 출전할 수 있게 되면서 한 숨 돌리게 됐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